

# 글쓰기 2

- 글쓰기의 윤리 -

인문 pp. 22~30, 이공 pp. 26~40

# 글쓰기 1 확인

## ●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

→ 글쓰기는 **의사소통** 도구로서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

## ● 좋은 글

→ 쉽게 읽히는 글 - 정확성 (내용, 표현), 논리성 (구성)  
창의성 (의견 - 유의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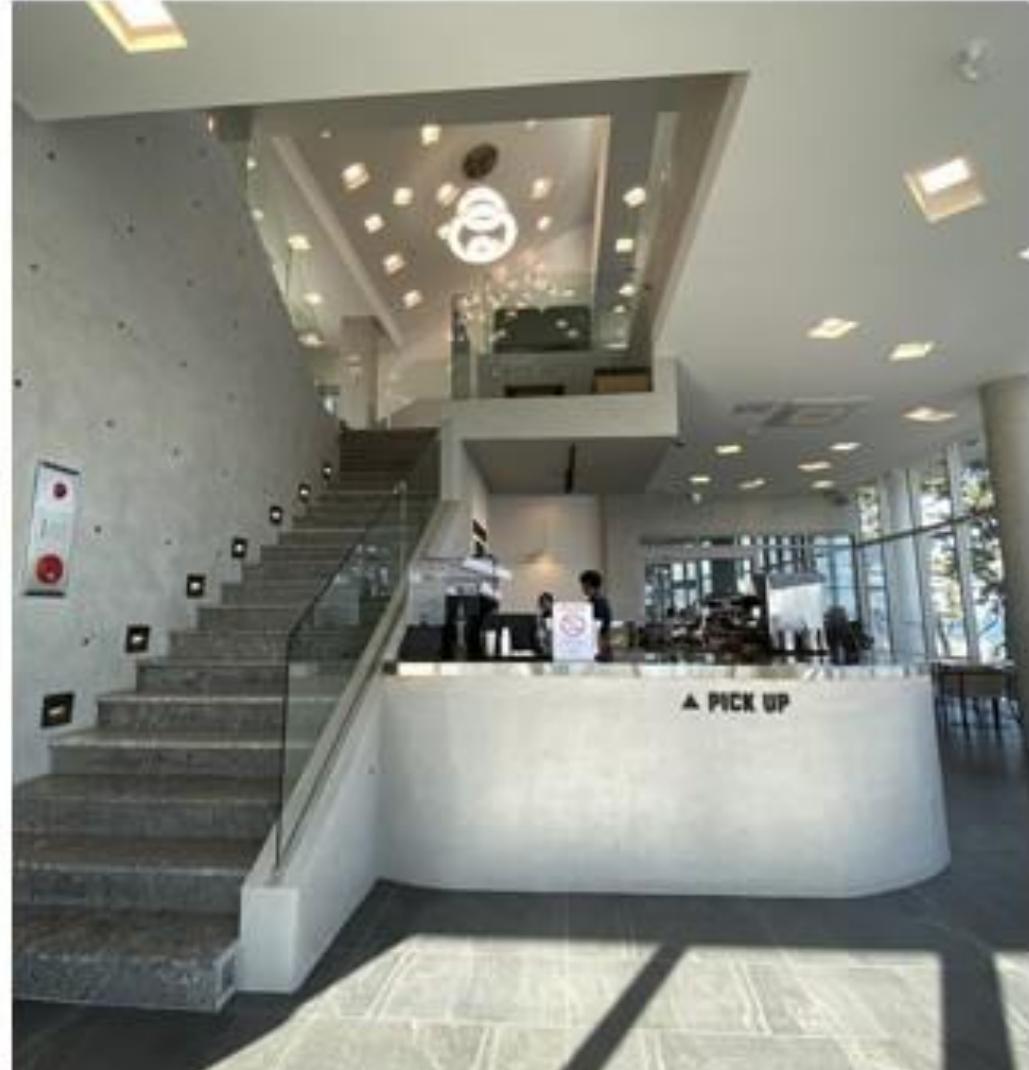
## ●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자세와 태도

→ 부단한 연습과 훈련, 다양한 독서와 비판적 사고

# 오늘의 학습 목표

- 글쓰기의 윤리가 무엇인지 안다.
- 글쓰기에서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를 이해한다.
- 글쓰기의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의 종류를 안다.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는 방법을 안다.

# 사진을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경남 사천 커피 레



강원 강릉 테라로사

대법원 판결 '레'가 '테라로사'를 모방

사진 출처 : NAVER 포스트 땅집Go

- 외벽과 지붕 슬라브가 곡선으로 이어진 점
- 건축물 왼쪽 부분의 1층과 2층 창을 연결한 점
-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시공한 점

# 모방 (Copy, Imitation)

- 기존의 창작물을 따라한 것으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함
- 모방이 인정을 받으려면 새로운 가치가 창출해내야 함
  - 디자인을 따라하고, 상표를 그대로 베꼈으며, 상품의 용도가 같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없음



사진 출처 : 국세청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면 모방이 아님”

# 패러디 (Parody)



## ❖ 패러디의 조건

- 패러디를 하려면 대중이 원작을 알고 있어야 함

## ❖ 패러디의 종류

- 작가의 의도(풍자)가 반영된 패러디
- 희화화 : 원작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
- 따라하기

❖ 글쓰기에서 패러디는                 가 분명해야 함 - 모방으로 의심

# 오마주 (Homage)



- ❖ 오마주는 기본적으로 원작자에 대한  
의 의미가 담겨야 한다.
- ❖ 사전에 오마주했음을 밝히지 않는 오  
마주는 모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  
일 뿐이다.
- ❖ 따라하기는 오마주가 아니다.
- ❖ 글쓰기에서 오마주는 표절로 의심받  
기 쉽다. (왜일까?)

사진 출처 : NAVER 블로그 씨네페이지

# 표절 논란

경향신문

'논문 10여편 표절' 의  
e-mail: 100@kyunghyang.com

대학생들 '표절은 기본'  
기사입력 2005.10.04. 오전 3:51

사회

보건·복지 미디어

11

기사입력 2001.11.30. 오전 10:26 최종수정 2001

본문등기

요약 <sup>Beta</sup> 가  

11

과 대학원생  
에게 큰 소용들이  
간되기도 했다. 이씨는  
먼디서 봇해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  
의 자퇴 이유서를 발표하기도 했

[동아일보] 학생들의 논문이나 리포트 표절을 용서하지 않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유명 교수들의 표 절 사실이 드러나 학교측이 처벌수위를 높고 고민에 빠졌다.

하버드대 학생들은 리포트 표절이 적발되면 해당 학기의 등록료 최소 2학기 정학을 당한다. 사실상 캠퍼스를 떠나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대학원생  
에게에 큰 소용들이  
간되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이 다닌 대학원  
유서를 발표하기도 했

찰스 오글트리

크레스 트라이브

# 글쓰기의 윤리

## ● 글쓰기의 윤리란?

- 글쓰기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규범을 의미한다.

## ● 글쓰기의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 를 바탕으로 해야만 진정한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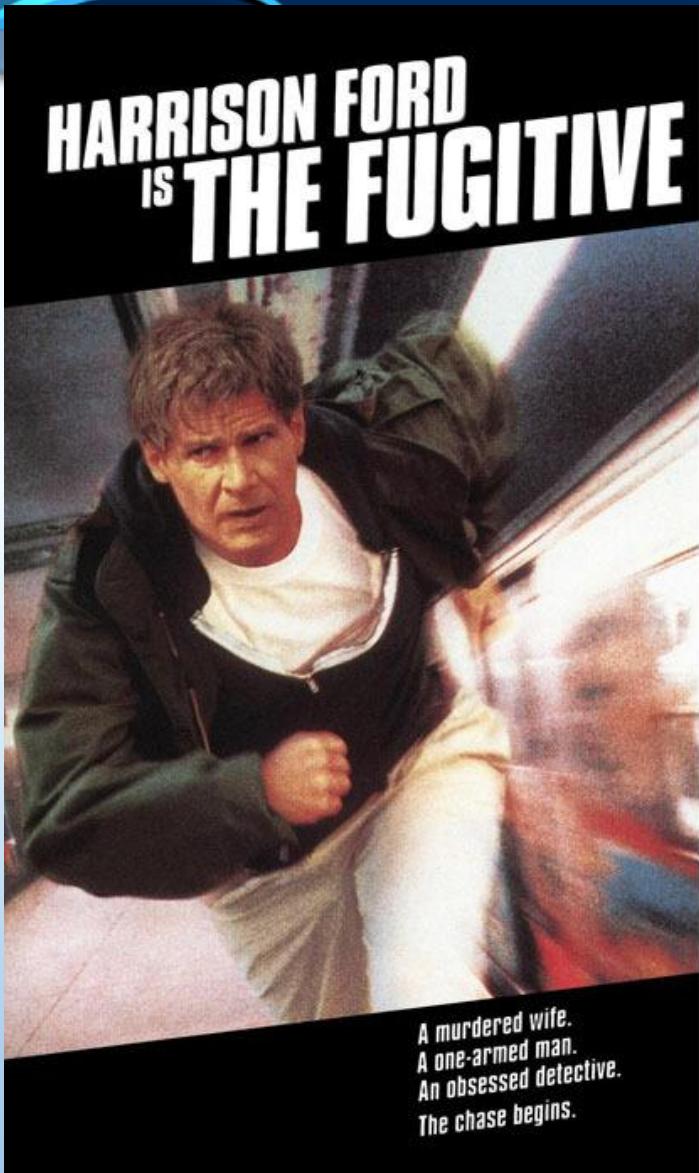
## 글쓰기의 윤리 위반 유형

1

### 조작 (造作)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것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부분 조작  
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도망자>, 1993

감독 : 앤드류 데이비스

외과의 킴벌(해리슨 포드)이 아내 살인 혐의로 잡혀 교도소로 이송 중 사고로 도망자가 되어 연방 보안관의 추격을 피해 억울한 누명을 스스로 벗는다는 내용

- 누명을 쓴 이유 : 동료의 데이터 변조를 알아챘기 때문

-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
- 자신의 글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나 그 외의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생각에 대한 표절**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개념, 등

**표현에 대한 표절** : 인용부호 없이 다른 사람의 글 중에서 연속으로

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

**자기 복제** : 자기 표절, 이중(중복) 게재

뿌리 / 손창현

**표절작**

가진 공간이라곤 자신의 몸뚱이 밖에는 없었던 K씨는 결국 식물을 몸 안에 심기로 결정했다.

K씨는 언젠가 포천병원에서 촬영한 흉부외과 방사선 사진에서 보았던 자신의 흉강을 생각하며 과연 식물을 몸속 어디에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했다. 아이, 괜히 이런 걸 주워서. 중얼거리면서도, K씨는 식물을 심을 곳을 몇십분째 고민하고 있다. 위장은 위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폐는 그가 가끔 얻어 피는 한 개비의 사치 때문에 식물이 말라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발 속은 어쩐지 냄새가 날 것만 같다. 그럼 양쪽 허벅다리? 슬쩍 허벅지를 내려다보자 IMF이후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온 허벅지는 앙상하게도 말라 있다. 다 낡아빠진 등산 바지가 헐렁하다.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다. K씨는 줄어들지 않는 무료급식 줄에 서서 골똘히 다음 장소를 생각했다. 척추에 매달아 놓기에는 척추는 너무 딱딱하고 굽어 있었다. 잘 치료받지 못한 디스크는 가끔씩 온종일을 공원 벤치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머릿속에 식물을 넣어 두기엔 가끔 자신이 아닌 식물에 의해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 것만 같아 불쾌했다. 아니, 불쾌할 것까지 있나. 뇌보다는 덜 중요하면서도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나 K씨는 까마득히 멀어진, 삶십 년 전의 포천고등학교 계학시설, 생물 시간에 배웠던 캐계목은 내용을 끌춰

**원작****[2018 백마문화상] 소설 부문 당선작 뿌리 - 김민정 학생(서**

명대신문 | ④ 승인 2018.12.09 16:49 | 댓글 0

**뿌리**

가진 공간이라곤 자신의 몸뚱이 밖에는 없었던 K씨는 결국 식물을 몸 안에 심기로 결정했다. K씨는 언젠가 흉부외과 방사선 사진에서 보았던 자신의 흉강을 생각하며 과연 식물을 몸속 어디에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했다. 아이, 괜히 이런 걸 주워서. 중얼거리면서도, K씨는 식물을 심을 곳을 몇십 분째 고민하고 있다. 위장은 위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폐는 그가 가끔 얻어 피는 한 개비의 사치 때문에 식물이 말라죽을 것이다. 그러면 어디가? 발 속은 어쩐지 냄새가 날 것만 같다. 그럼 양쪽 허벅다리? 슬쩍 허벅지를 내려다보자 IMF이후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아온 허벅지는 앙상하게도 말라 있다. 다 낡아빠진 등산 바지가 헐렁하다.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다. K씨는 줄어들지 않는 무료급식 줄에 서서 골똘히 다음 장소를 생각했다. 척추에 매달아 놓기에는 척추는 너무 딱딱하고 굽어 있었다. 잘 치료받지 못한 디스크는 가끔씩 온종일을 공원 벤치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머릿속에 식물을 넣어 두기엔 가끔 자신이 아닌 식물에 의해 조종당하는 기분이 들 것만 같아 불쾌했다. 아니, 불쾌할 것까지 있나. 뇌보다는 덜 중요하면서도 몸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나 K씨는 까마득히 멀어진, 삶십 년 전의 포천고등학교 계학시설, 생물 시간에 배웠던 캐계목은 내용을 끌춰

# 표절 기준과 표절에 대한 인식

## 1) 표절 기준

- 6 어절이 연달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 명제 혹은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표현이나 아이디어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

## 2) 표절에 대한 인식

- 표절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표절인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창작물을 인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 이른바 '**짜깁기**'가 표절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 표절 개념의 확장

- 의도하지 않은 표절도 표절 → 우연한 표절(accidental plagiarism)
- 일반적 지식은 출처 표시가 없어도 표절이 아님  
;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 ▶▶ 표절 개념이 확장된 이유

- 사회적 책임의 강조, 원저작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발생  
; 저작권 침해 - 글의 경우 표현된 것으로 판단  
- 차용된 양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함
- \* 양이 적어도 저작자의 노력이 함축된 중요 부분이 차용된 경우라면 표절로 판정됨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훈련을 마치고 흙먼지투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워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미시아 유키코의 <우국(憂國)>, 『金閣寺, 憂國, 연회는 끝나고』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흙먼지 묻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면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지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중략)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배어들었다. 여자의 변화를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신○○의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 (2) 범죄예방 효과성에 대한 논란

하지만 CCTV의 범죄예방과 범죄 단속의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CCTV활용이 범죄발생율을 낮추고 범죄검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하여 대체로 범죄발생율이 낮아지고 범죄검거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컨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의 경우를 보면, 1994년에 3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The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의 조사결과를 보면, 범죄발생율이 올라가고,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도 있한 논란다. 그리고 범죄예방 단속에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단순히



원문

표절한 글 A red arrow pointing right from the '표절한 글' label to the text below it.

하지만 CCTV의 범죄예방과 범죄 단속의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CCTV활용이 범죄발생율을 낮추고 범죄검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하여 대체로 범죄발생율이 낮아지고 범죄검거율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컨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의 경우를 보면, 1994년에 3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The Scottish Office Central Research Unit의 조사결과를 보면, 범죄발생율이 올라가고,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리고 범죄예방 단속에 효과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단순히 범죄장소만 이동시키는 효과만 가져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과 열혈 청춘들의 비하인드 사진이 대방출됐다.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극본 조광진·연출 김성윤) 측은 20일 캐릭터와 완벽 동기화된 열연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우들의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대방출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6회에서는 박새로이(박서준)가 장가그룹과 장대희(유재명) 회장을 향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새로이는 이미 8년 전부터 '빅 픽처'를 그리고 있었다. 당시 폭락 중이던 장가그룹에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투자하며 복수의 초석을 다진 것. 여기에 자신이 가진 자금

을 장가그룹에 다시 쏟아부은 결과, 박새로이는 총 19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급부상 [OSEN=박소영 기자] 이태원 클라쓰' 박서준과 열혈 청춘들의 美친 반란이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박새로이의 15년짜리 계획을 무시하고 비웃던 장회장, 10여 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뜨거

를 예고하며 심박수를 높였다. 우직하게 한길만 가던 박새로이의 놀라운 반전은 보는 이들의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연출 김성윤, 극본 조광진, 제작 쇼박스·지음, 원작에도 불을 지폈다. 시청자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다. 무서운 기세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던 다음웹툰 '이태원 클라쓰') 측은 20일, 캐릭터와 완벽 동기화된 '착불' 열연으로 신드롬 원 클라쓰'는 지난 6회 방송에서 12%(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돌파하며 동시간대 1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우들의 촬영장 비하인드 컷을 대방출했다. 했다.

신문 기사의 경우 표절로 의심되는 글들이 여럿 존재한다. 하지만 기사는 표절 시비가 없다. 그 이유는 기사문의 형식과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계의 관행이기도 하다.

지난 15일 방송된 6회에서는 박새로이(박서준 분)가 장가그룹과 장대희(유재명 분) 회장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박새로이는 이미 8년 전부터 '빅 픽처'를 그리고 있었다. 당시 폭락 중이던 장가그룹에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투자하며 복수의 초석을 다진 것. 여기에 자신이 가진 자금을 장가그룹에 다시 쏟아부은 결과, 박새로이는 총 19억 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급부상했다. 박새로이의 15년짜리 계획을 무시하고 비웃던 장회장, 10여 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뜨거운 격돌을 예고하며 심박수를 높였다.

우직하게 한길만 가던 박새로이의 놀라운 반전은 보는 이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다. 그의 사이다 반격에 열렬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이에 시청자 반응도 가히 폭발적이다. 무서운 기세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태원 클라쓰'는 지난 6회 방송에서 12%(전국 11.6%, 수도권 12.6% / 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돌파,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불러모았다.

## ▶ 표절에 대한 처벌 - 미국의 경우

- 금동근, 「표절 방지? 글쓰기 능력 키워 주기 먼저」,  
《동아일보》, 2009년 7월 3일.

- \* 우리나라도 모든 대학교 내 윤리위원회가 설치
- \* 표절이 심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 \* 대학원 학위 논문의 경우 문서 유사성 검사 필수
- \* 학자들 연구 논문 제출시 윤리 서약서 제출



미국 대학의  
표절에 대한  
처벌 수위

|                                      |   |
|--------------------------------------|---|
| 공식 경고<br>(Formal Warning)            | 학생이 표절 방지 방법을 잘 몰라 실수로 범했다는 사실을 교수가 인정할 때 |
| 성적 감점<br>(Lowering the Grade)        | 표절이 실수로 이뤄졌다고는 해도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            |
| 근신<br>(Probation)                    | 의도적으로 표절했거나 수정 지시를 어겼을 경우                 |
| 지도성 제재<br>(Disciplinary Sanction)    | 표절로 경고를 한 번 받은 학생이 다시 표절했을 때              |
| 사회 봉사<br>(Community Service)         | 실질적인 반성 유도를 위해 추가로 다른 벌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 졸업 지연<br>(Delay of Degree Conferral) | 4학년 학생으로, 졸업이 다가와 다른 마땅한 처벌이 없을 때         |
| 정학<br>(Suspension)                   | 두 과목 연속 표절 등 의도적으로 표절을 심하게 저질렀을 때         |
| 퇴학<br>(Expulsion)                    | 표절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때           |
| 학위 취소<br>(Revocation of Degree)      | 졸업한 뒤 학위 논문에서 심한 표절이 밝혀진 경우               |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는 방법



## 개인적 차원

- 자신과 약속 :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
- 자료 목록의 작성 : 자료 조사 시 꼼꼼하게 기록  
자료의 서지사항(저자, 제목, 발행처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활용



## 제도적 차원

- 생명 윤리 위원회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필요  
연구 계획, 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서약서 등 첨부
- 표절 예방 시스템 : 문사 유사성 비교 프로그램 활용
- 윤리 서약서 제출 : 작성한 글을 제출하는 기관에 서약서 제출



## 기술적 차원 (글쓰기의 실제에서 다시 다룸)

-

타인의 저작물 및 창작물을 자신의 글에 이용하는 방법

-

인용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소개하는 방법

**서지사항(저자, 제목, 발행처 등)을 반드시 밝힘**

-

외주 중 각주로 작성하거나 내주로 작성한 글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함

## \* 올바른 인용법의 실례 \*

다음은 여러 형태의 표절에 대한 올바른 인용 방법의 예들이다.<sup>34)</sup>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최인훈,  
『광장』(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 196.

| 표절   | 표절의 이유  |
|--|---|
| 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br>(출처표시 없음) | ①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최인훈이 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표절<br><br>②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그대로 가져온 문장을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br><br>올바른 인용 :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                   |
| ②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 ③ 최인훈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매우 비슷한데, 출처표시가 없으므로 표절임.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말을 바꿔 표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br><br>올바른 인용 : 전쟁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이명준은 중대한 고민에 맞닥뜨렸다.* |
| ④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br>(출처표시 없음)              | ④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넣어 인용문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br><br>올바른 인용 : 최인훈에 따르면, 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br>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휩싸인 듯 보였다.*                                     |
| ⑤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br>(출처표시 없음)                    | ⑤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인용으로 표시하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명준이 깊은 구렁에 빠졌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원저작자의 판단이다.<br><br>올바른 인용 : 최인훈은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썼다.<br>최인훈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떨어진 듯 보였다.* |

### 직접 인용의 경우

- 인용부호(큰따옴표)와 출처표시(주석)를 해야 함

### 간접 인용의 경우

- 출처표시(주석)를 반드시 해야 함
- 원문과 표현이 달라야 함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섞인 경우

- 인용부호(큰따옴표), 출처표시(주석)를 해야 함

한국연구재단 편(2011),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121쪽.

## \* 올바른 인용법의 실례 \*

다음은 여러 형태의 표절에 대한 올바른 인용 방법의 예들이다.<sup>34)</sup>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최인훈,  
『광장』(서울: 문학과지성사, 1976), p. 196.

### 표절

- ①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 ②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 표절인 이유

- ① 인용부호와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최인훈이 쓴 문장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므로 표절

- ② 자료의 출처는 제시했지만 그대로 가져온 문장을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인용문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표절

올바른 인용 :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직접 인용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③ 싸움이 그쳤다는 소식을 들고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③ 최인훈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매우 비슷한데, 출처표시가 없으므로 표절임.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으면서도 원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말을 바꿔 표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인용 : 전쟁이 종단되었다는 소식에 이명준은 중대한 고민에 맞닥뜨렸다.\*

## 간접 인용

- 출처표시(주석)를 반드시 해야 함
- 원문과 표현이 달라야 함

##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④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출처표시 없음)

④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은 인용부호 안에 넣어 인용문임을 표시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인용 : 최인훈에 따르면, 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

이명준은 "싸움이 멎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휩싸인 듯 보였다. \*

⑤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  
(출처표시 없음)

⑤ 원저작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은 인용으로 표시하고,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명준이 깊은 구렁에 빠졌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원저작자의 판단이다.

올바른 인용 : 최인훈은 "명준은 깊은 구렁에 빠졌다"고 썼다. \*

최인훈에 따르면, 휴전 소식을 접한 이명준은 "깊은 구렁"에 떨어진 듯 보였다. \*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섞인 경우

- 직접 인용한 내용에 인용부호(큰따옴표), 출처 표시(주석), 한 문장으로 처리

# 읽을 거리, 볼 거리

“일취월장, 신영준 큐레이션인가 표절인가?”

<https://brunch.co.kr/@denniskim7/13>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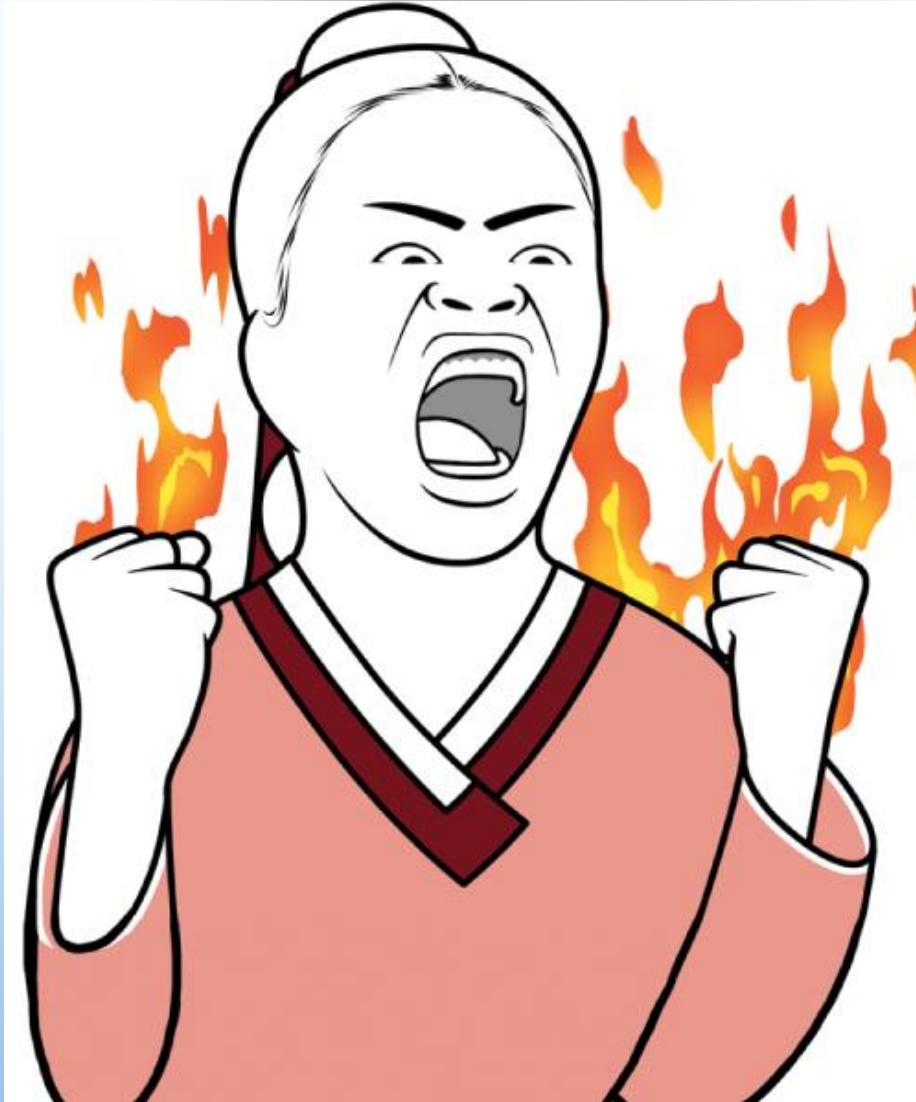
<http://edu.copykiller.com/edu-source/faq/?mod=document&uid=29>

“MBC 시사만평 15회 생명공학 논문조작”

<https://www.youtube.com/watch?v=c3ohp5Lrl5M>

## 2주차 정리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행위이며, 독자에 대한 신뢰를 지켜는 행위이다.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글쓰기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용법, 주석 작성법, 참고문헌 작성법을 익혀야 한다.



여러분의 옷을 허락도 없이 동생이, 형이  
혹은 언니가 입었다면 기분이 어떠한가요?  
누군가가 명품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짹퉁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글쓰기에서 표절과 조작은 독자를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 Q & A

수고하셨습니다.